

동호회탐방 인쇄노조 풍물패 함지박

# 우리 것이





# 좋은 것이여~

## 신명나게 스트레스 풀고 어깨춤 덩실덩실

좀처럼 가지지 않는 불황의 여파로 인쇄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불황의 여파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경영자나 노동자나 매 한가지. 하지만 여기 일상의 스트레스를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훌훌 털어 내는 이들이 있으니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풍물패 '함지박'이다.

함지박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월 31일 명보극장 앞과 을지로 일대에서 벌어진 '치신밟기 행사'에서였다.

커다란 깃발을 앞세우고, 인쇄골목 이곳 저곳을 누비던 그들이 있었기에 조용하기만 하던 인쇄골목은 그 날 하루 활기가 넘쳐흘렀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난 2월 끝물에 다시금 함지박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에 있는 풍물패 동아리 '탈반'의 연습실.

풍물 동아리치고는 크지 않은 연습실과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흡음판이 전무한 열악한(?) 동아리 여건 때문에 8

명(일정 때문에 3명이 참석을 못함)이 어우러져 쳐 대는 풍물소리는 인쇄골목의 흥을 돋우던 한달 전 그것과는 또 달랐다.

함지박의 탄생은 지난 1988년 11월로 인쇄노조가 생겨난(87년) 이듬해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그 역사가 참으로 길다. 초창기 16명으로 시작한 함지박은 90년 초에 전성기를 맞이해 회원수가 3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구제금융의 한파이후 회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00년에는 그 수를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남을 정도여서 존폐까지 위협받는 위기에 봉착했다.

1987년에 인쇄계통에 발을 들여놓은 후 1988년부터 풍물패 활동을 시작해 결혼을 하고도 아직까지 풍물패를 떠나지 않은 왕고참 함영석(현대제판 44)씨는 "결혼을 하고 계속 나오면 되는데 가정을 가지다 보니깐 아무래도 모임에 소홀히 하게 되고, 어찌하다 보니깐 나

중에 3명이 남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따지고 보면 결혼이 문제다. 결혼을 한 후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풍물패에서 뺏어진 후 떨어져 나간 7쌍이나 되는 커플들은 더욱 문제였다. 함영석씨 역시 결혼 후 한동안은 풍물패 활동에 대한 이견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위기는 변화와 함께 희망을 안고 오는 법. 2004년의 풍물패 함지박은 창립초기와 비교해 그 세월의 깊이 만큼이나 많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성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함씨가 한참 활동을 할 때만 해도 풍물패는 노조원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원칙은 깨지기 시작했고, 구성원이 많이 달라진 지금 풍물패는 가입을 원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개방되어 있으며, 때론 노조와 대립 각을 세울 수도 있는 오너(owner)에게까지 개방되어 있다.

올해부터 회장은 맡은 박영천(곰솔기



풍물패 함지박의 박영천 회장

획 대표)씨도 노조원이 아닌 1인 사업장 오너임에는 분명하다.

92년 대한교과서에 입사하면서 인쇄와 인연을 맺은 박씨는 인쇄와 인연을 맺기 전부터 풍물을 접하긴 했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풍물과 인연을 지속할 수 없었다. 박씨는 2002년 함지박에 가입하면서 다시금 풍물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씨가 1인 사업장 오너라면 조동영(일지봉투 대표·42)씨는 직원수가 4명에 달하는 봉투제조회사 오너이다. 봉투 제작 납품 회사인 일지봉투의 오너가 인쇄노조 함지박에 가입하게 된 것도 함지박의 위상이 크게 변한 탓이다. 일지 봉투 4명의 직원 중 2명이 조씨를 따라 풍물패 견학(?)을 왔을 만큼 함지박에 대한 조씨의 애정은 남다르다.

이형직(삼정기획인쇄·34)씨와 백규호(삼정기획인쇄·24)씨는 직장 동료로 둘 다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한국민속촌

농악대 소속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군 복무 시절에 전공인 풍물을 통해 휴가증을 획득한 바 있는 베테랑 급 회원이다.

베테랑 이씨와 달리 백규호씨는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사회 생활 경력만큼이나 짧은 풍물 경력의 소유자로 함지박 가입 2주만에 있는 '지신밟기' 행사에서 징을 맡았다.

2003년 9월부터 함지박과 함께 해오고 있는 유미수(27 여)씨의 직업은 건설회사 회계관리 담당 직원으로 인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함

지박 입회 동기는 전 직장 동료이자 동거인인 IBM 편집 디자이너인 김연수(명함나라·여·27)씨의 소개 때문이었다.

유미수씨는 "풍물이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니까 남들 보다 좀더 특별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좋아요"라며 자신의 특별한 취미생활을 자랑했다.

유미수씨의 직종이 좀 특별하다면 올해로 오프셋 인쇄 경력 11년 차를 맞이하는 오프셋 기장 심재현(가명 33)씨는 정통 인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쇄라는 직업이 자기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 받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오프셋 인쇄기 기장인 심씨의 등장은 다소 의외로 비추졌다.

"가장 어려운 게 정해진 시간에 시간을 내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수요일 정기모임이 있는 시간만큼은 내 시간을 갖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회사도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 줘서

매번 빠지지 않고 모임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다른 인쇄인들도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 주지 않겠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직종만큼이나 다양한 게 연령이다. 24살의 백규호씨가 있다면 백규호씨와 같은 연령의 자녀가 있는 최귀자(48)씨도 있다.

IBM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최씨는 이미 지난 1999년까지 함지박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4년 정도 쉬었다가 2003년 4월에 다시금 함지박의 일원으로 합류한 경우로 기존 멤버와 신입 멤버 사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그땐 풍물을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들어와서 장구를 잡으니깐 맛을 알겠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장구를 치고 나서는 스트레스, 갱년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인생에 낙이 생긴 거죠."

8시부터 시작된 정기모임은 두 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하지만 두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3명의 인원이 참석을 못했다.

"아쉽죠. 인쇄 산업에 종사하는 원죄라고 해야 하나요? 모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게 오늘처럼 일 때문에 전원이 참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고마운 것은 1년에 한번씩 정기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10시 이후에라도 회사 일이 끝나는 대로 집에 안가고 연습실로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말하는 잡초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그것이 너무나 진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진부함을 버리기엔 1월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또 한명의 신입회원을 맞이한 이들의 생명력은 참으로 길다.

17년을 이어오는 동안 지난 날 만큼보다 훨씬 많은 세월들이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 함지박과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홍우기자>